

사진기자의 단상

“우리 결혼했어요” 신혼부부 달콤한 키스



하늘은 높고 맑은 살진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입니다. 알록달록 찬 이슬 맞아 고운 빛깔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은 결혼 시즌이기도 합니다. 주말 예약장 주변 도로는 신랑·신부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하객 인파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식장 앞에 준비하게 늘어난 화려한 장식의 웨딩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중앙로에 풍선으로 치장한 차량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를 축하하기 위한 친구들의 카퍼레이드 행렬이었습니다. 선무프 위로 모습을 드러낸 신랑·신부는 달콤한 키스를 나누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목 튀는 신세대들답게 결혼 모습도 발랄합니다. 갑작스런 풍경에 당혹해 하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은 미소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부부는 특별한 추억으로 2008년 가을을 기억할 것입니다.

흔히 “결혼은 일생 일대의 가장 큰 도박이다”고들 합니다.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한다고 하는 결혼, 요즘 드라마속에 등장하는 결혼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걷다보면 발이 맞지 않아 발걸음이 더디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비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멋진 일이 아닐까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결혼 생활은 긴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찬찬히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사한 두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리빙 센스

불면증 예방을 위한 생활 10계명

1.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생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2. 잠이 오지 않아도 억지로 자겠다고 강박 관념을 갖지 않는다.
3.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밤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특히 저녁을 거르지 않는다.
5.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유유를 살뜰 데워 먹는 등 부당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6. 카페인, 술, 담배를 피한다.
7. 쾌적하고 조용한 침실 분위기를 만들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8.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낮잠은 한 20분 정도만 잔다.
9. 신선한 야채를 먹는다.
10. 명상이나 이완요법을 통해 긴장감을 줄인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4일(음 10월 7일)

子	36년생 주변의 변화가 손재로 들어오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48년생 재물이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아내의 건강도 살펴볼라. 72년생 조식해야 손실이 없으리라. 84년생 뒤를 한번 돌아보면 할 일도 많다. 행운의 숫자 : 06, 29
丑	37년생 언행을 주의하라. 49년생 재물과 처에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1년생 건강을 위한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라. 73년생 재물이 불리하니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 85년생 헛것 달랠까 면 결과가 좋으리라. 행운의 숫자 : 19, 33
寅	38년생 재산은 증식되나 아내와 이해가 부족 되니 대화이 필요 하다. 50년생 협조자가 나타나지만 조심성 있게 판단하라. 62년생 흥보다 길이 더 많으니 안심하고 보내라. 74년생 좋은 일과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1, 40
卯	39년생 누명 구설 등으로 불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1년생 순화기가 발동하면 망신수가 발생한다. 63년생 모든 일에 신중하고 욕심을 버려라. 75년생 기성전환과 황재수가 있고 노력에 비해 대가가 증가된다. 행운의 숫자 : 12, 36
辰	40년생 본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52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멋지게 행동하라. 64년생 흥분은 금물이니 생각과 행하라. 76년생 직장에서 새로운 일로 인정받고 가전의 편안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3
巳	41년생 실물수는 있으나 재물도 들어온다. 5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기 전후와우를 살펴 가라. 65년생 수족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이 어지럽다. 77년생 대단히 불리해지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9, 34
午	42년생 공짜 술에 범이 나니 절대로 가지마라. 54년생 상황에 따라 시비 도난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뜻하지 않은 돌발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78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나 쉽지않은 않다. 행운의 숫자 : 07, 30
未	43년생 제일 편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55년생 무흔의 부부도 예의를 지키면 사람은 두 배가 된다. 67년생 자기자랑보다 동료를 칭찬하라. 79년생 이성을 만나보라 좋은 진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21, 37
申	44년생 가족과 떨어져 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56년생 내에게 불편한 일을 내 탓으로 생각하라. 68년생 배우자 덕이 없다고 생각 이 들면 자신의 노력 부족. 80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때. 행운의 숫자 : 14, 36
酉	45년생 지출도 무자로 생각하라. 57년생 형제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된다. 69년생 작은 일도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라. 81년생 애인과 즐거움은 있으나 마무리가 서운하다. 행운의 숫자 : 17, 40
戌	46년생 슬픔도 기쁨도 한꺼번에 나타난다. 58년생 어부지리가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70년생 이력사함과 금전거래는 가능한 편이라. 82년생 소망대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03, 25
亥	47년생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은 내어주라. 59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다. 71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마무리 하는 자신이. 83년생 부모에게 효도도 중요하나 자신교육은 미래의 행복이다. 행운의 숫자 : 05,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오늘의 유머

▲드라이브 중 생긴 일

사런 지 얼마 안된 남편이 드라이브를 나갔다. 한창 차가 속도를 내자 안전을 위해 ‘찰카’ 하며 오토 도어락이 잠겼다. 그 소리에 보조석에 앉은 아가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모습에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 저기 제 차는 70킬로가 넘으면 안전 때문에 문이 잠겨요.” 그에게에 얼굴이 더 빨개진 여자가 소리쳤다. “저 몸무게 70킬로 안 넘거든요!”

▲아내가 무서울 때

20대 : 외박하고 들어갔을 때  
30대 : 카드 빚 독촉장 날아왔을 때  
40대 : 아내 샤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  
50대 : 아내의 곰국 끓이는 냄새가 날 때  
60대 : 해외여행을 가자고 할 때 (떠어놓고 올라와)  
70대 : 이사 간다고 할 때 (가는 곳도 알려주지도 않고 놔두고 갈까 봐)

▲아내의 요리솜씨

아내가 한 밤중에 남편을 깨우며 말했다. “여보, 큰일났어. 무슨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니 도둑이 부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거야!” 남편이 즐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놈이 정말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던 말이야?” “정말 그렇더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알았어. 그러면 말이야. 경찰을 부를까? 구급차를 부를까?”

▲명대답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50년 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해보요.”

“핸드폰이요!” “컴퓨터요.”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저요!”

▲동물병원

어느 동물병원 진료실 앞에 붙어 있는 문구. “의사 안에 있음. 앉아. 기다려.”

▲이애는 이

한 남자가 술을 마시다가 매력적인 아가씨를 발견했다. 용기를 낸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저와 잠시 얘기나 나누실까요?” 그러자 그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싫어요. 오늘은 당신과 잠자리를 할 수 없어요!”

그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봤고, 남자는 망신을 당한 채 테이블로 돌아왔다. 얼마후 여자가 남자에게 와서 말했다.

“난처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남자가 목청껏 대답했다. “아니 20만원 이라니 그게 말이 돼?”

▲아내의 꽃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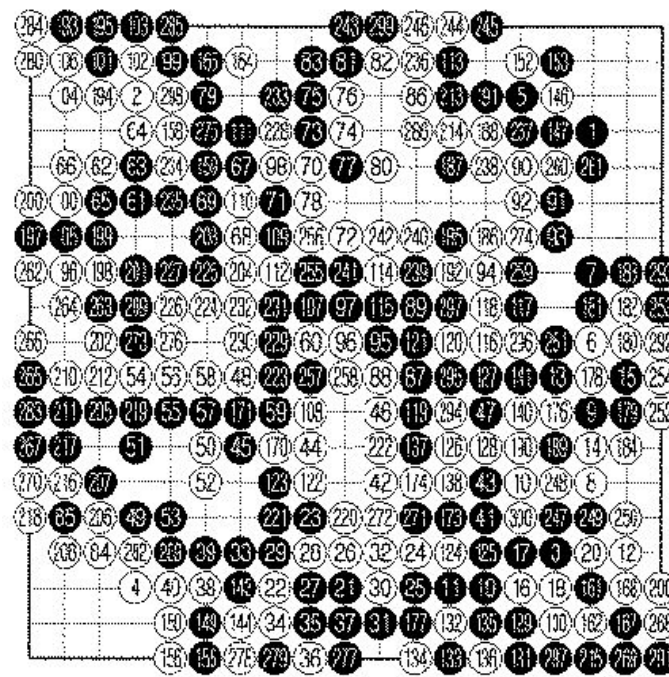
꽃꽂이 감습에 특목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늘 강사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을 비판하며 손질하는 게 싫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다 마지막 감습을 받던 날 여자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은 강사가 내 작품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았어요!” “축하해! 오늘은 작품이 완벽했던거로군!” 남편에게 아내가 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작품은 엉덩퀴로 만들었거든요.”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강민후군 우승컵 차지

초등부 최강부 결승전 총보(1~300)

白 강민후 3단 黑 김태훈 3단 (조봉초 6) (신창초 6)



결국 이 바둑은 경험에서 앞선 강민후군이 후반에 몇번 실착을 저지른 김태훈군을 11집 반 승으로 따돌리고 제2회 회장배 초등부 최강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초반전은 우하귀의 정석 이후 흑 23로 의욕을 보인 수가 백 24의 날카로운 램을 당해 28로 끊어져서는 흑이 시달리는 바둑이 되었고 백 44로 모자쇠위 흑을 공격해서는 일찌기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백도 51 부근에 두어 집을 지으면서 공격하지 않은 48이 기분에 치우친 수로 실속이 없었다. 흑이 잡싸게 49부터 59까지 선수로 사는 모양을 갖춘 다음 61로 좌상귀

를 걸치게 되어서는 초반의 실책을 완전히 만회하게 된다. 흑이 상변의 대마도 83까지 안정을 취하면서 계가바둑의 양상이 되었는데 잘 두던 김태훈군이 중반전에 접어들어 113으로 상변 쪽을 차지한 것이 결국 패착이 되고 만다. 이 수로는 중앙을 118로 틀어막는 것이 두려운 곳으로 매우 컸다. 강민후군이 교묘하게 118부터 128까지 대마를 차단한 솜씨는 노련했다. 하변 흑 대마가 135까지 꽃음이 꽤 나가서는 만사휴의,백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백 300 수 끝, 백 11집 반 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81>

Is she much like Mary? 그녀는 메리와 판박이니?

A : How are you doing with your new room-mate?  
B : Great. She's hilarious.  
A : Is she much like Mary?  
B : Not at all, but we seem to be getting along fine.

A : 새로운 룸메이트하고는 잘 맞아?  
B : 좋아, 재미있는 사람이야.  
A : 메리하고 딱 닮았니?  
B : 전혀 아니지, 하지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 hilarious : 웃기는, 재미있는  
\* get along = 사이좋게 지내다.

\* 네가 받는 영어수업, 어땠니?  
= How are you doing in your English class?

오하오우 니혼고 <1181>

何(なに)新聞(しんぶん)に載(の)ってんですか 어떤 신문에 난 것입니까?

A : また飛行機(ひこうき)事故(じこ)ですって。  
B : えっ、またですか。その記事(きじ)は 何(なに)新聞(しんぶん)に載(の)ってんですか。  
A : 朝日(あさひ)新聞(しんぶん)です。何(なん)だか不安(ふあん)で、飛行機(ひこうき)に乗(の)りたくないですね。  
B : ええ、怖(こわ)いですね。

A : 또 비행기 사고라는군요.  
B : 네? 또요?? 그 기사는 어떤 신문에 난 것입니까?  
A : 아사히신문입니다. 왠지 불안해서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아요.  
B : 네, 무섭군요.

ですって : ~라는군요  
載(の)る : 실리다, 게재되다  
乗(の)りたくない : 타고 싶지 않다

니하오 쯙구워 <258>

这是给表姐的。 이것은 사촌누나에게 줄 것입니다

A: 这是给谁的?  
zhè shì gěi shéi de  
A: 这是给表姐的。  
zhè shì gěi biǎojiě de  
A: 这件礼物是谁送的?  
zhè jiàn lǐwù shì shéi sòng de  
B: 是爷爷送的。  
shì yéye sòng de  
A: 이것은 누구에게 줄 겁니까?  
B: 이것은 사촌누나에게 줄 겁니다.  
A: 이 선물은 누가 준 겁니까?  
B: 할아버님께서 주신 겁니다.

谁 [shéi] 누구  
爷爷 [yéye] 할아버지

한자 이야기 <898>

至楚北行(지초북행) 이를 지, 나라 이름 초, 북쪽 북, 다닐 행

지초북행(至楚北行)은 초나라에 가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경우나, 방향이 틀린 경우를 비유한다. 전국시대에 위(魏)나라 혜왕(惠王)이 조(趙)나라 수도邯郸(邯鄲)을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대신 계룡(季雍)은 사신으로 가다가 급히 귀국하여 곧 바로 혜왕을 배견하였다. “방금 제가 돌아오는 길에 태행산(太行山) 부근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수레를 북쪽으로 몰면서 ‘초(楚)나라에 가려고 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당신은 초나라로 간다면서 어찌 북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요?’하고 묻자, 그는 ‘나의 말이 좋은 말입니다.’라고 했고, 제가 다시 ‘말이 비록 훌륭하다라도 이는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그는 다시 ‘여비도 충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신이 재차 ‘아무리 여비가 충분하다고 하여도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그는 ‘나의 마부가 뛰어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말 대로하면 말과 마부가 좋으면 좋을수록 초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왕께서 넓은 영토와 강력한 군대를 믿고 급히 한단을 공격하면, 패왕이 되는 길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지초북행(至楚而北行)하는 것과 같습니다.”(戰國策, 魏策)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